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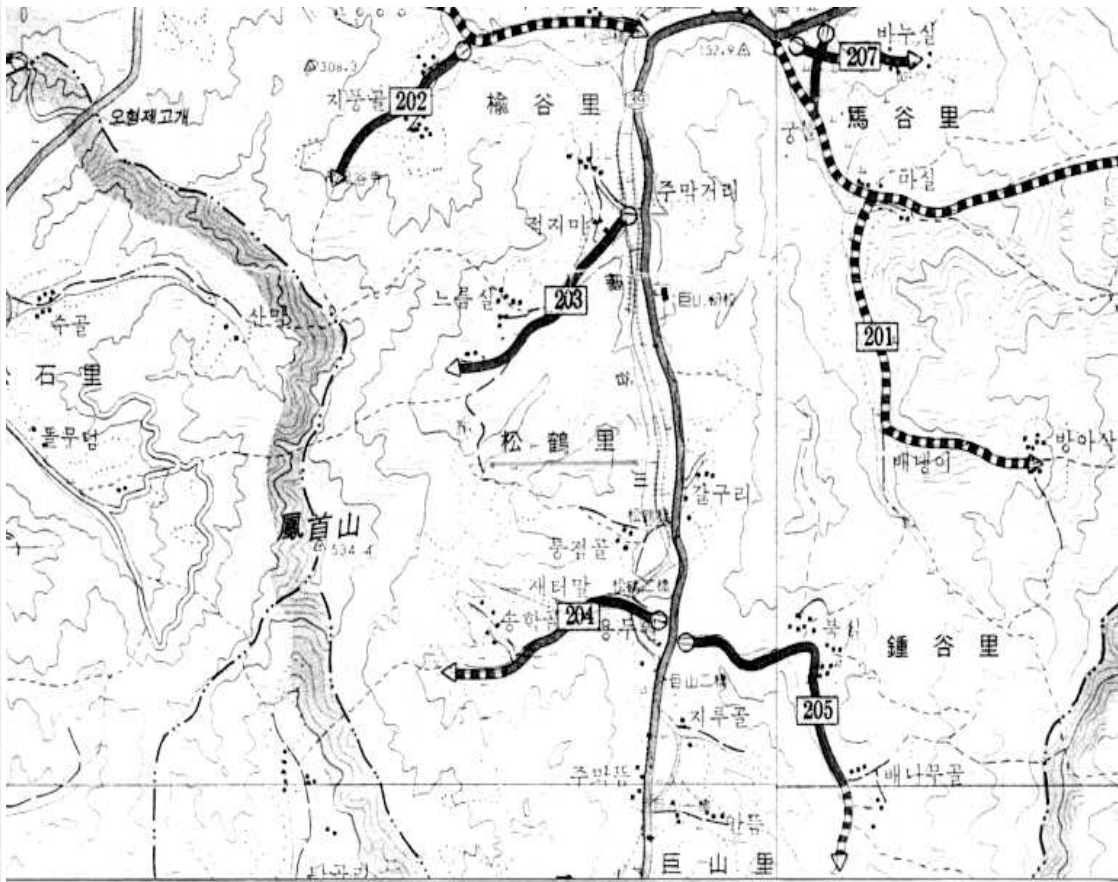
송학리·松鶴里

송학리·松鶴里

< 구연자 : 아산시 송악면 송학 2리 윤성용씨 (74세)>

송학리는 송악면의 한 마을로 작은 두 마을로 나뉘어져 있다. 1리를 송학골, 2리를 갈곶리라 한다. 송학리의 총 인구는 236명이며, 가구수로는 57세대가 살고 있으며,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송학리는 본래 온양군 남상면의 지역으로서 봉수산 속 깊이 들어앉은 마을이므로 속안골 하던 것이 변하여 송학골, 또는 송학골이라 하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갈곶리를 병합하여 송학리라 하여 아산군 송악면에 편입되었다.

< 송학리 위치도 >



☒ 송학골 마을, 갈곶리 마을(송학리)

송학1리는 송학골을 포함한 새터말, 위뜸, 가운뎃말로 4개의 작은 마을로 이루어졌으며, 송학골 마을은 송학바위가 있고 송학리라 불리워졌다고도 하며, 마을이 산 깊숙히 자리하고 있다해서 속안골이라 하던 것이 송학골 또는 송학골로 불리게 되었다는 설도 있으며, 새터말 마을은 송학골 아래 새로 된 마을이라 유래 되었고, 주막거리 마을은 갈구니 앞 길가에 있는 마을로 주막이 있었다하여 이름 지어졌으며, 위뜸 마을은 송학골의 봉수산 밑에 마을로 위쪽에 있어 이름 붙여졌으며, 가운뎃말 마을은 송학골의 가운데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송학2리는 갈곶리를 포함 통점골, 아래뜸, 촛대봉으로 이루어 졌으며, 갈곶리는 갈구니로 불리고 있는데 지명의 유래는 마을 명칭의 한자가 목마를 갈자와 고니 곤자를 사용하며 마을의 산 줄기를 고니혈이라 부르는데서 생겨났을 것이라는 설과 산에 있는 쉼터굴이 물을 찾아 밑에 있는 냇가까지 내려왔다 해서 불리어지게 되었다는 설이 전해져 내려 오고 있으며, 통점골 마을은 갈구니 서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시대 때 이곳에 구리점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며, 아래뜸은 갈구니 아래에 있다하여 붙여진 지명이며, 쫓대봉 마을은 갈구니의 상단부의 마을로 지형이 쫓대 모양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조사당시 송학리마을 관련 사진 >



1) 위 치

송학골 마을은 위도 36-40-20, 경도 126-58-50인 지역에 위치해 있다. 면소재지에서 39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14km 되는 지점에서 204번 도로로 갈라지는 곳이 나오는데 그 204번 도로의 중간쯤에 마을이 있다.

갈곶리 마을은 위도 36-40-30, 경도 126-59-40인 지역으로 유구방면 도로를 따라 올라가다보면 거산 초등학교가 나오고, 그 위로 조금 더 올라가면 갈곶리가 나온다.

2) 현 황

송학골의 인구는 남자 51명, 여자 54명으로 총 105명이 살고 있으며, 세대수는 26가구이다. 그 중 21가구인 9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비농가이다. 갈곶리 마을의 인구는 송학골 마을보다 많은 131명으로 남자 67명, 여자 64명이다. 총 31가구가 살고 있는데 95%의 농업에 5%는 비농가 또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 인구 현황

구 분 마 을 명	계	남	여
송학골마을	105명	51명	54명
갈곶리마을	131명	67명	64명

- 생 업

구 분	계	농 업	기타서비스업
-----	---	-----	--------

마 을 명			
송학골마을	100%	90%	10%
갈곶리마을	100%	95%	5%

송학골 마을의 농경지는 논과 밭으로 구분되는데 논 16.2ha, 밭 10.4ha 이루어져 있다. 농기계는 경운기, 예취기, 이앙기와 기타 많은 농기계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마을의 문화 시설로는 마을회관을 제외하고는 없다.

갈곶리 마을의 농경지는 논 11.4ha, 밭 11.8ha 이루어져 있다. 농기계는 예취기가 가장 많으며, 경운기, 이앙기등이 많이 농사에 이용되고 있으며, 마을의 문화시설로는 마을회관 1개소와 그안에 농악기구들이 비치되어 있다.

- 농경지 현황

구 분 마 을 명	계	논	밭
송학골마을	26.6ha	16.2ha	10.4ha
갈곶리마을	23.2ha	11.4ha	11.8ha

- 문화 시설

구 분 마 을 명	계	마을회관	노인회관
송학골마을	1개소	1개소	-
갈곶리마을	1개소	1개소	-

송학골엔 김씨가 35%로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윤씨와 임씨는 19%로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분포로는 다른 마을과 동일하게 50대와 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갈곶리 마을에는 김씨와 이씨가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그밖에 다양한 성씨들이 고루 살고 있다. 연령층은 40대에서 60대까지가 가장 많고 나머지는 골고루 분포한다.

- 성씨별 분포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김 씨	윤 씨	임 씨	이 씨	기 타
송학골마을	26호	9호	5호	5호	-	7호
갈곶리마을	31호	8호	4호	-	9호	10호

- 최고령자

송학골 마을의 최고령자로는 김 봉철 할아버지로 올해 89세이시며, 갈곶리 마을의 최고령자는 박 윤복 할머니로 84세이시다.

3) 자연 경관

송학골은 봉수산이 감싸고 있으며, 이 마을은 그렇게 많은 가구는 아니지만 마을 입구에서부터 가옥들이 드문드문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새롭게 길을 닦고 있는데 현재 마무리 작업중이므로 조만간에 깨끗한 길이 만들어 질 것이다.

갈곶리 마을 앞에 우측으로 느티나무가 있으며, 왼쪽으로는 요즘 새로 생긴 가든이 있다. 앞뒤가 산으로 되어 있고 마을 앞으로 유구로 가는 도로가 나왔다.

4) 마을 변천과정

송학골은 본래 온양군 남상면의 지역으로서 봉수산 속 깊이 들어 앉은 마을이므로 속안골 하던 것이 변하여 송악골, 또는 송학골이라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갈곶리를 병합하여 송학리라 하여 아산군 송악면에 편입되었다.

5) 입 향

송학골 마을에 처음 터를 잡은 성씨는 전의 이씨들이라고 한다. 지금은 모두 떠나고 없으며, 현재까지 5대째 살고 있는 최고령자이신 김봉철씨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아, 마을의 형성은 서기 1850년경 약 150년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갈곶리 마을에 처음 터를 잡은 성씨는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나 현재까지로는 윤씨가 현재 4대째로 가장 오래 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송학골 보다는 좀 늦은 서기 1880년경 약 120년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6) 지 명

十 송학골 마을 지명

·송학골 : 속으론 깊숙히 들어가 앉은 마을이라 하여 속안골이라 하였는데 변하여 송악골 또는 송학골이라 함.

·새터말 : 송학골 아래 새로 된 마을.

·윗뜸 : 송악골의 중간 마을.

·가운데 말 : 송악골의 중간 마을.

·안말 : 봉수산에서 송악골로 내려오는 첫 마을.

·작은말 : 새터말에서 안말 중간에 있는 마을.

·봉수산 : 소양골의 주된 산으로 송악골을 감싸고 있는 산.

·깊은골 : 바랑골 밑에 위치한 골.

·벗나무골 : 새터말과 작은말 중간의 골짜기.

·용정골 : 송악골 초입의 측골.

·바랑골 : 작은말 정면에 위치한 골.

·부탕골 : 공주 고개 밑에 위치한 골.

·어동골 : 작은말 뒤쪽의 봉우산 골짜기.

·절터골 : 작은말 위의 절터가 있는 골.

·공주 고개 : 안말에서 유구쪽으로 넘어가는 고개.

·돌무덤 고개 : 안말에서 예산쪽으로 가는 고개.

十 갈곶리 마을 지명

·갈구니 : 송학골 아래쪽에 있는 마을로 갈화형이라고 하여 갈구니라 함.

·주막거리 : 갈구니 앞 길가에 있는 마을. 주막이 있음.

·통점골 : 갈구니 서쪽에 있는 마을. 이조때 이곳에 구리점이 있었음.

·아래뜸 : 갈구니 하단부의 마을 지명.

·아래 갈구니 : 마수골 밑에 2가구가 형성된 마을.

·마수골 : 아래 갈구니 위쪽의 산골.

·동수골 : 갈구니 위쪽의 산골.

·배밭골 : 갈구니에서 남동쪽에 위치한 골.

·쫓대봉(초대방) : 갈구니의 상단부의 마을로 지형이 쫓대 모양이라 하여 쫓대봉이라 함.

7) 전 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 행사

송학골에는 특별한 전통행사가 없고, 갈곶리 마을에서 예전에 성황제와 노신제를 지냈는데, 성황제는 박정희 대통령때 없어지고 노송제는 왜정 때부터 지내지 않게 되었다고 하며, 지금도 마을 입구에 큰 노송이 마을을 지키고 있다.

9) 특별하게 소개할만한 인물

10) 종교 단체

송학골에는 종교단체가 현재로서는 없지만, 옛날 절터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 절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11) 공장현황

갈곶리 마을에 공장이라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마을에 밤 저장 창고가 있어 밤을 모아 저온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적당한 시기에 유통을 하는 곳이 있는데 저장창고가 매우 크다.

12) 마을의 특성

송학골 마을은 모여 있지 않고, 산골 깊숙하게 위치하면서 드문드문 가옥들이 모여 있는 것이 특징이며,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

갈곶리 마을은 도로변에 위치하여 교통편이 편리하고 근래들어 주위에 식당과 레스토랑이 생기고 있어 마을의 옛모습이 약간씩 사라지고 있다.